

# 한 민족과 함께한 닭 이야기

이 희 훈 특수축산 대표



## 1. 세시풍속

우리 조상들은 닭을 영물로 여겨 길조(吉鳥)로 여겨왔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닭, 호랑이, 용 등 세화(歲畵)를 벽에 붙이는 풍습이 있는데 이들 세화는 악귀를 쫓아주는 영묘한 힘을 지녔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세화의 풍습은 후한시대(後漢時代)부터 정월 초하루날을 『닭의 날』로 여겨온데서 비롯된다.

닭은 영혼의 소재를 알려주는 주술적인 영험도 지녀 물에 빠져죽은 사람의 시신이 떠오르지 않으면 닭을 물에 던져 이를 점치기도 했다. 또한, 산신제를 지낼 때 산신당에 닭을 매달아 제물로 바쳤고, 예로부터 흰닭은 영약(靈藥)이어서 이를 잡

아 신에게 바치고 기원하면 여러 가지 잡병이 낫는다고 믿어왔다.

닭의 피는 마을에 돌림병이 돌거나 재앙이 있을 때 대문이나 벽에 발라 악귀를 쫓는 풍습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갈대, 닭, 복숭아를 삼위 일체로 하는 민간 신앙이 있어 음력 정월 초에 대문 처마에 닭을 못으로 쳐 매달아 악귀를 쫓기도 했다.

닭은 동양에서 예로부터 길상(吉祥)의 동물로 여겨져 년(年), 월(月), 일(日), 시(時)에 짐승의 명칭을 붙여 12간지(干支)중 열번째에 해당하는 해가 닭의 해(酉年)로 올해가 바로 닭의 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초하루를 닭의 날(酉年)로 여겨 초이틀 날에는 닭에게 각별하게 좋은 먹이를

주어 위해주는 풍습도 있었다.

상유일(上酉日)은 정월 초유일 즉, 닭의 날로 이날은 부녀자들이 바느질과 길쌈을 못하게 했고, 곡식도 마당에 널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닭의 날에 모임을 갖게 되면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날에는 닭을 잡아먹지도 않았고 지붕도 새로 잇지 않았다.

## 2. 닭계(鷄)의 유래

닭을 일컫는 계(鷄)자는 새조(鳥) 옆에 큰배 해(奚)를 덧붙인 글자이다. 큰배 해는 어른(大)과 손(手)과 실(玄)을 합성한 것으로 물레를 돌리는 어른(大)을 뜻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죄수로 하여금 물레를 돌리게 함으로써 마치 닭이 알을 낳는 것처럼 옷감을 얻었다는 뜻이다. 또한 해(奚)자는 실같은 털이 잇따라 엉겨붙은 큰 배를 나타낸다고 풀이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새조(鳥)중에서도 유달리 배가 커 보이는 새가 곧 닭(鷄)이라는 풀이이다.

## 3. 닭을 부르는 「구구」

우리가 닭을 불러모을 때나 먹이를 줄 때 「구구」라고 부르는 것은 「Kukku」와 「Talk」에서 비롯되는데 닭을 라틴어로 「Kukkuta」라 칭하는 것과 관련시켜 닭이라는 호칭이 인도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하며 닭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여서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남선에 의하면 인도인은 해동(海東, 한국)을 구구타(矩矩)라 했는데 이를 번역하면 계귀(鷄貴)이며 계귀란 산스크리트(Sanskrit)인 쿠쿠타스바라(Kukutasvara)를 의역한 것으로 구구타는 「닭」이고 「스바라」는 귀하다는 뜻으로 인도인들의 한국 호칭이다.



닭은 방위상으로 남서방위이며 바람, 나무, 침입, 유연함을 상징하고 용맹성과 호전성을 보이면서 우주의 생명을 상징한다. 또한 시간은 오후 5~7시를 가리킨다.

## 4. 계명(鷄鳴)

닭울음으로 적을 치는 것이 계명점(鷄鳴占)이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것으로 대보름날 꼭두새벽에 첫 번째 우는 닭의 소리를 기다렸다가 그 우는 횃수를 헤아리는데 울음소리 횃수가 적으면 흉년이 들고 열번 이상 울게되면 그해 농사는 풍년이 온다고 했다. 올해도 닭들이 많이 울어 풍년이 들기를 기대해 본다.

닭의 날인 정월 초하루가 밝으면 계천청기(鷄天

淸氣)라 해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며 온 천하가 풍년이 온다고 믿어왔다. 우리 조상들은 닭을 길조로 여겨 왔기에 제사를 올릴 때 닭의 울음소리를 기술했다.

시계가 없던 시절 몸집이 작은 서리병아리를 깨워 몇대에 걸쳐 서리병아리를 기르게 되면 몸집이 더욱 더 작아지는데 이 닭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맑은 날에도 어김없이 축시(丑時)에 울어주기 때문에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이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베개속에 넣어 기르기도 했다. 또한 먼길을 떠날 때 조롱속에 넣어 휴대했으므로 오늘 날의 자명종 역할을 담당한 것이 닭인 것이다.

### 5. 닭과 오덕(五德)

기원전 고사에는 노(魯)나라 원공대왕이 간신들에게 현혹돼 국정을 그리치자 전채라는 충신이 벼슬을 내놓고 다른 인물대신 닭을 추천했다는 일화가 한시외전(漢詩外傳)에 나타나 있다.

이는 닭이 문(文), 무(武), 용(勇), 인(仁), 신(信)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이다.

닭은 머리에 벼슬을 지니고 있으니 문을 지녔고, 다리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으니 무(武)이며, 적을 만나며 용감하게 대적하니 용(勇)이며, 먹이가 있으면 혼자 먹지 않고 서로 불러 모으니 인(仁)이며, 제때에 어김없이 울어주니 신(信)을 지녀 오덕을 거느렸다는 것이다.

특히 한자로 맨드라미를 계관화(鷄冠花)라 부르는데 이는 맨드라미 꽃 모양이 닭의 벼슬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닭그림을 그릴 때 맨드라미를 상하로 그리면 관상가관(冠上加冠)의 의미로 벼슬의 높아짐을 염원하는 저의가 담겨있다. 또한 수탉 한 마리만 그릴 때는 목을 높이 쳐들고 우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친다는 의미에서功名圖(功名圖)라 부른다.

닭그림은 우리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중 사신도(四神圖)의 주작은 닭 형체를 나타낸 것이어서 가장 오래된 닭그림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6. 닭과 관련된 지명(地名)

산봉우리가 닭 벼슬과 닮았다는 계룡산은 닭과 관련된 지명중에서 백미로 회자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鷄山洞)은 이마을 뒷산이 암탉과 같이 생겼다해서 암탉을 뜻하는 빈계산(牝鷄山)이라고 했고 이 산 이름에서 연유해 계산동이라 불리운다.

충청남도는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난 1990년 주산(主山)인 천황봉을 향해 나는 모습을 상징, 몸통 및 꼬리부분은 기존 주거지와 고속도로, 국도를 연결케 했고 심장부위에 해당하는 혈지산은 근린공원과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국계의 목과 가슴 부분은 상업용지로 뱃부분은 행정중심지, 눈부분은 문화시설지구로, 금계의 부리와 천황봉은 직선으로 있는 중간부분에서는 시설지원단지들로 계획한 것이어서 풍수지리설을 도입한 것이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자리가 들어선 곳은 닭 다리들이라 부르던 곳이다. 이 닭 다리들은 후백제 전황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패한 뒤 패한 이유가 자신이 닭을 천적으로 여기는 지네의 후손이고 이곳 지명이 닭 다리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경북 청송에 위치한 국립공원 주왕산은 영남의 명산중에 하나로 『달기약수』가 유명하다.

이 약수는 1백여년전 조선조 철종임금때 금부도사를 지낸 권상하라는 사람이 눈에 물을 대기 위해 수로를 내던 중 바위틈에 있는 버드나무를 뽑아 냈는데 물이 계속 올라와 이상히 여기고 물맛

을 보았더니 트름이 나면서 뱃속이 편해져 이때부터 약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달기약수』라는 명칭은 물이 솟아오를 때 『꼬르륵, 꼬르륵』하고 닭 울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즉 닭 울음소리와 비슷해 달기약수라 했다. 또한 이곳에서는 찹쌀과 마늘을 넣고 이 약수를 부은 다음 책나무로 불을 지펴 고아낸 백숙과 옷나무 껍질을 함께 넣고 삶아내는 옷닭요리가 유명하다.

신라를 계림(鷄林)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조부부가 내정, 계정에서 낳았기 때문이며 탈해왕 재임시 김알지를 얻을 때 닭이 숲속에서 울었기 때문에 국호를 계림이라 했다가 『신라』로 바뀌었다. 계림이란 신라 탈해왕 때부터 신라와 경주의 다른 이름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김알지의 탄생설화도 월성 서리의 시림(始林)에서 흰 닭이 울고 있어 찾아가 보니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황금궤에서 빛이 찬란해 궤개를 열어 아기를 얻으니 이로 인해 성을 김(金)씨로 했고 이름을 알지로 부르니 알지는 방언으로 아기를 뜻한다.

한편 충북 충주시 동북쪽에 위치한 계명산은 심항산(心項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닭이 밟지 않은 곳이 없는 산이라는 뜻으로 계족산(鷄足山)이라 하였으나 그 이름이 닭의 발모양을 뜻하므로 재물이 흩어져 큰 부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해서 산 이름을 계명산(鷄鳴山)으로 개칭하였다.

## 7. 전승놀이

닭살이라는 놀이가 있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하는 것으로 전남지역에서는 『닭살이』 경남지역에서는 『통닭』, 충북지역에서는 『닭잡기』로 불리운다. 놀이 방법은 가위, 바위, 보로 순위를 칭하고 맨 꼴지가 삼팽이가 되고, 그 다음 아이가 닭이 되

는데 나머지 놀이꾼들은 손과 손을 마주잡고 둥근 원을 그리며 앉는다.

닭이 된 아이는 이 둥근 원속에 있고 삼팽이는 원 밖에 있게 되며 삼팽이가 원 밖을 거닐다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탄 곳을 보거나 방심하면 손을 뛰어 넘어 닭이 된 아이를 잡는 것인데 이때 삼팽이가 원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삼팽이가 된 아이를 골려주는 놀이이다.

닭싸움은 주로 남자 아이들이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두손으로 잡은 뒤 한쪽 다리로 이동하면서 들어올린 다리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상하좌우로 공격하는 놀이로 다리를 잡은 손을 놓거나 넘어지면 지게되는 놀이이다.

## 8. 닭먹는 날

제주도에서는 음력 6월 스므날이 『닭 먹는날』로 전해내려온다. 1백여년전부터 전해지는 이 풍습은 닭고기 소비촉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기력이 떨어질 때로 떨어진 상태인 이 시기에 강력한 보양식을 통해 기력을 회복, 무더운 여름철을 이겨내자는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담겨있는 미풍양속이다.

닭먹는 날에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이웃 어른들께 닭고기를 선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겨울철에는 나평닭이라고 해서 닭고기 옛을 만들어 먹는 풍속도 전해진다.

한편 2월 14일 로마의 크리스티교 순교자인 발렌티누스의 축일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발렌타인데이 에 카드와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대신 이날을 발렌치킨데이로 정해 닭고기 소비촉진이 뿌리내리고 있다. **양계**